

2010년 4월 30일 목숨걸고 행함에 대하여

부산 주믿음 교회 캠퍼스 이수정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도에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야기도를 하면 15분 정도 기도하는 것이 다였고 그후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 저도 열심히 기도해보고 싶어요”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되면서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경처럼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게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새벽기도 두시간 내내 심정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날부터 미지근 했던 제 마음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조금씩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었고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주님은 더 깊은 심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철야기도중 기도가 잘 되지 않아 하나님께 닿는 기도, 온전히 상달되는 깊은 기도 드리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던 중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행함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며 들려온 음성입니다.

목숨 걸고 행함에 대해 너를 통해 나 예수가 말하노라. 진정 너희가 많이 들어온 말이니라. 목숨 걸고 행하라 함을 들었느냐? 너희의 마음에 듣고 심정으로 깨달아 들었느냐? 그같이 행하였느냐? 목숨을 건다는 것을 잘 모르는 자 있어 말하노라. 이해하지 못하고 행치 않는 자 있어 이 말을 전하노라. 목숨을 건다는 것, 이것은 사랑이 근본이니라. 단지 충성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고 말지. 그러나 사랑하기에 목숨을 거는 것은 결코 무너지짐이 없느니라. 너희 목숨 다해 행하여 본적 있느냐? 나 예수는 목숨 걸고 행하였느니라. 목숨 걸고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목숨 건 사랑이었느니라. 진정 사랑하였기에 내 목숨 바칠 수 있었다. 너희를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였기에 내 목숨 너희에게 준 것이다. 목숨 걸고 사랑해 본적 있느냐? 이 시대 열두 사도처럼 목숨 걸고 행할 자가 필요하다. 그같이 나를 사랑할 자를 원하노라. 목숨다해 외쳐줄 자, 사랑하기에 그같이 해줄 자. 아들급의 사랑 시대에도 그같은 열두 사도 있었으니 신부의 사랑 시대에는 어떠하냐? 너희 모두가 그같은 자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완벽한 나의 섭리,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너희가 시인하며 갈진데 외쳐줄 자가 이리도 적으냐 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실감하며 가는 자가 외쳐줘야 함이 마땅함이 아니냐? 목숨 다한 나의 사랑, 너를 그토록 사랑한 나의 사랑 진정 깨달아 너 또한 그러한 자 되어라. 나 사랑하기에 목숨 다해 뛰어줄 자 되어라. 먼저는 목숨 건 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라. 어찌하여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는지 깨달아라. 진정 깨달을지어다. 그사랑 너희가 받았으니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전하여준 열두 사도, 지금도 그 같은 자를 찾는다. 나의 사랑 알기에 진정 알기에 이 섭리를 확신하기에 목숨 다해 뛰어줄 열두 사도를 찾노라. 실상은 너희 모두 이와 같아야한다. 섭리 모두가 열두 사도와 같아야한다. 하나님의 사랑, 6000년의 사랑, 나의 목숨 건 사랑 받은 너희 하나님을 신랑 만난 너희가 전해줄 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 애인이라, 나와 함께인 너희 애인이라, 나와 함께하니 함께하니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 사랑 깨달아야 목숨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육천년의 사랑 아는 자만이 목숨 다해 뛰어줄 것이다. 모두가 나의 몸 되겠다고 약속한 자들이니 그같이 해보자. 목숨 걸고 일어날 2010년이 되어야한다. 확신가지고 일어날 한해 되어야한다. 내가 찾고 찾으니 열두 사도와 같은 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확신하며 이역사 따라올 자가 줄지어 올 것이다. 그같은 자는 어릴지라도 확신의 무기를 가졌으니 목숨다해 할 것이다. 이 역사를 믿느냐? 믿는 자 일어날 지어다. 불같이 일어나 불을 일으킬 지어다. 나 너희 믿고 너희 또한 나 믿으니 역사 일어날 것이다. 너희를 믿노라. 나의 사도와 같은 이 섭리 신부들을 믿노라. 성령의 기름 부어주었으니 불같이 일으켜보자. 마음 다해 사랑하노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나 예수가 전하였노라.